

시정·유관기관 정보

도서관 정보

의정소식 / 건강상식

의정소식

건강상식



고양시의회, 미안마 군부쿠데타 규탄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일 미안마 군부가 2020년 11월 실시한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빠른 시일에 선거로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미안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미안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안마의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고양시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방문 관계자 격려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9일 고양꽃전시관 내 설치한 고양시 안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민·관·군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김덕심 의회 운영위원장은 고양시 안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백신 관리 시설 등 시설물 설치 현황과 접종 이동 동선을 살펴보는 한편,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예방접종 준비 대응 상황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길용 의장은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항생제 내성 예방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한국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보다 1.6배나 높다. 특히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항생제란 무엇이고, 항생제 내성은 왜 위험한 것일까.

출처: 질병관리청

항생제, 정확히 어떤 것일까?

항생제는 세균(박테리아)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일상적으로 마이신(Mycin)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 마이신은 여러 항생제 계열 중 하나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항생제는 감기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효과적이지 않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물은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 약물 또는 항바이러스제라고 한다. 세균(박테리아)의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생제. 분명 좋은 치료제임에도 항생제 내성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가 들리곤 하는데, 이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유전자를 지닌 새로운 세균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내성균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준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세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침투를 막거나 항생제 분해효소를 만들어 내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내성을 가진 세균은 내성 없는 균에 내성유전자를 전달해 내성을 더 확산시킨다.

항생제 내성, 왜 위험할까?

최악으로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처럼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 이를 사용하거나 처방받은 항생제의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예방법

1.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무엇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서도 질병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만 처방해야 하며 환자도 개인의 판단으로 항생제를 의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우려를 막기 위해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처방받은 그대로의 용법과 양, 기간을 지켜서 끝까지 복용하고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과 항생제를 나눠 복용해서도 안 된다.

2.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항생제 내성균은 여러 경로로 사람에게 전파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 손 씻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